다락방 모임 리더 해설지 (9/13 주간)

견고한 약속, 확실한 미래 (창 15:1-21)

1.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브람에게 어떤 두려움과 고민이 있습니까?(1-3절)

1.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1) **아브람은 대적들의 반격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318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승리했지만, 언제 열강의 연합군이 반격해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성공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언제 어떤 반격이 내 앞에 닥쳐서 이것이 무너질까? 내가 과연 그걸 또 막아낼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나한테 그럴 힘과 자원이 남아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고민들이 아브람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2) **아브람에게는 약속된 자식이 없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람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라고 대답합니다. 아무리 큰 상급을 주셔도 그 상급을 남겨줄 상속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자신이 죽으면 집에서 길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 **아브람의 고민은 불신이라기보다 약속이 지체되는 데서 오는 '섭섭함'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주 여호와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기가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약속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깊은 속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두려움과 고민을 솔직하게 아뢴 것입니다.

나눔 **요즘 나로 하여금 '언제 무너질까, 내가 또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흔들리게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할 나의 섭섭함과 간절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2. 두려워하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4-5절) 아브람의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모범이 됩니까?(5-6절)

4.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1)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람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말하자, 하나님은 곧바로 "그 사람이…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을 장막 밖으로 이끌고 나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후손이 셀 수 없이 많을 뿐 아니라,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2) **하나님은 아브람의 생각과 시야를 '하늘의 관점'으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아브람이 두려워하고 흔들렸던 이유는 땅의 현실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은 영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현실을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땅의 관점에서만 보면 세상이 말하는 현실 논리와 인간적 조건, 성공 법칙에 붙잡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관점으로 생각의 차원과 시야가 끌어올려질 때 더 큰 그림 속에서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3) **아브람은 가장 두렵고 흔들리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했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에서 '믿었다'는 히브리어는 '아만'으로, '굳게 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옵니다. 아브람은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가장 두렵고 흔들리던 순간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믿음은 흔들림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굳게 서는 것입니다.

나눔 **지금 내 마음을 가장 흔들고 두렵게 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하늘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때,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아멘'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3.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7, 18-21절) 그 약속을 어떻게 보증하십니까?(9-11, 17절)

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 **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19.**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20.**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 **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 **17.**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 **하나님은 아브람과 그의 후손에게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까지는 당시 아브람이 경험했던 모든 세계입니다. 작게는 약속의 땅, 크게는 오는 세상 전체를 아브람의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2)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 체결식'으로 약속을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하늘의 별보다 더 확실한 보증을 주십니다. 삼 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해서 새를 제외한 제물들을 둘로 쪼개어 마주 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고대의 언약 체결식에서는 약한 나라의 왕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며 '언약을 어기면 나도 이 짐승처럼 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자신이 쪼갠 고기들처럼 될 것이라고 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약속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3)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약속을 보증하셨고, 그 약속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심으로,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우리 자손은 언약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을 보증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끝까지 이 믿음 안에 서야 합니다.

나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약속을 보증하셨다는 사실이, 나의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바꾸어 줍니까?**

4.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보여주신 미래가 무엇입니까?(13-16절)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알 수 없는 것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그의 후손이 겪을 사백 년 후의 미래까지 보여주십니다.** 아브람의 자손들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사백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하시고, 그 후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람 자신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 자손들은 사대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2)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손의 미래를 세세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를 넘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큰 그림'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세부 사항을 보여주지는 않으시지만, 큰 그림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흐려질 수 있어도,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시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능력과 지혜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먼 미래와 다음 세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당장 눈앞에 닥친 성적, 취업, 안정만 보지 말고 더 멀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지, 그것을 위해 어떻게 믿음을 세우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400년 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70년, 100년은 내다보면서 우리 자녀 세대와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나눔 **앞날을 알 수 없어 불안해질 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지금 내가 준비하고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은 무엇입니까?